

心理解釋의 方法論的 關聯*

李 義 詰

서울大學校

心理學이 獨自的 科學으로 認識되기는 人間이 人間을 自覺한 Renaissance(文藝復興)의 時代부터라고 할 수 있다. 心理學은 其後 急速히 發展하여 마침내는 그 對象과 方法에 依하여 여러 學派로 갈라져 展開되고 있으나 그들이 적어도 같은 心理學이라고 할 진대는 그런대로의 獨自的인 科學으로 認定받을 理由가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心理學을 그 對象과 方法에서 整理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하나, 自己의 意識을 內省法에 依해 記述하는 것.

둘, 他人의 精神과 性格을 解釋法에 依해 理解하는 것.

셋, 動物과 人間의 行動을 操作法에 依해 說明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對象과 方法은 세가지의 心理學을 成立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心理學으로 秩序와 論理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心理學에 있어서 세가지의 存在命題가 되기도 한다. 即 經驗의 自覺에 依한 方法으로 意識의 構造를 課題로 하는 存在의 第一 命題, 表現의 理解에 依한 方法으로 精神의 意味를 課題로 하는 存在의 第二 命題, 그리고 行動의 操作에 依한 方法으로 生活의 形成을 課題로 하는 第三 命題가 되는 것이다.

第一 命題로 因하여 經驗은 主觀과 客觀으로 對立하고 그 相互作用에서 各樣各色의 意識의 形態가 現象한다. 그들의 構造에 對한 理論이 意識現象의 記述과 分析에 關한 學說로 發展하

는 것이다. 이럴테면 知情意라든가, 表象, 判斷, 意欲과 같은 分類가 되며, 그 方法은 經驗의 自覺인데, 그 經驗의 主觀화와 客觀화의 相關을 實驗的 方法으로 處理한다. 이것이 現象學的 實驗이며, 所謂 現象學的 還元으로 規定되는 經驗의 對象性, 또는 存在의 客觀性은 經驗의 主觀性에 對應하는 實驗的 操作의 範疇로서 使用된다.

그리고 一般的으로 存在의 現象을 現象 서로 間의 關係라고 認識하며, 그 關係를 經驗의 主觀性이 表現하는 意味라고 理解하려는 것이 第二의 命題이다.

存在의 現象을 그들의 關係에서 一定한 法則性이라고 認識한다. 物質에 對해 生命이라든가 또는 精神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現象의 關係에서 認識되는 特殊한 對象의 意味인 것이다. 存在라는 現象이 一般的으로 自然이라고 想定한다면, 그것에서 特殊한 對象을 摸索하려는 心理學도 物理學, 化學, 生物學 등과 같이 自然科學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自然科學에 對하여 心理學을 유별나게 精神科學이라고 할 때는 그 方法論에 있어서 第二命題와 第一命題가 混同되어 있기 때문이다. 人間의 行動도 表現도 存在의 現象임에 다름이 없고, 그들의 關係가 特殊한 意味로 理解되는 것이며, 그것은 現象의 實驗的 操作에 依해서만 客觀적으로 妥當한 意味로서 發見되는 것이다. 現象이 刺戟과 反應의 關係에서 操作될 때 비로소 刺戟은 實驗者와 被驗者에게 共通하는 媒介概念으로 使用되는 經驗範疇이며, 이 範疇에 依한 實驗的 操作으로 말미암아 反應이라는 現象에 心理學的 意味가 賦與되는 것이다. 이럴테면 動物의 反應이 知覺的 反應인

* 본 論文은 1981年 韓國心理學會 年次大會에서 초청 강연으로 發表되었음.

가 아닌가는 刺戟의 性格이 그 意味를 規定하는 것이다. 刺戟이 自然의 事物, 人間의 行動, 文化的 所産이면 그것에 應하여 反應은 特殊한 意味의 表現으로 理解된다. 一般的으로 精神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實體의 存在가 아니고, 行動 또는 表現의 意味인 것이다.

그리고 意味는 表現에 關하여 發見되고, 狀況에 따라 變容되며, 動機와 條件에 따라 發達한다. 따라서 心理學이 問題로 삼는 行動은 自然的, 社會的, 文化的 狀況에 依한 作用과 反作用의 關係에서 規定되는 生活의 形成이다. 이것이 第三의 命題이다. 實驗者가 作用의 全體로서 作動하고, 操作의 手段으로 自然, 社會, 文化的 狀況을 問題로 하여 考究하므로써 産業心理學, 教育心理學, 臨床心理學과 같은 實際問題의 解決이 意圖되며, 그 研究法으로 Action Research, Operation Research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 畢竟은 心理學이 科學인 同時에 技術學이 되며, 心理學을 理論的과 應用的으로 區別할 必要도 없게 된다.

第一 命題에서 經驗의 自覺에 依한 意識構造로 認定되는 意味는 F. Brentano에 있어서는 志向的으로 內在되어 있는 對象이며, A. Meinong에 따르면 意識의 內容에 對한 對象, 即 그의 表現에 따르면 objekt에 對한 objektiv이고, E. G. Husserl의 解釋에 依하면 그것은 記號로 表現된 Bedeutung(意識) 또는 Sinn이라고 生覺되며, 그 意味에는 特殊와 一般의 關係가 同時에 含蓄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自覺되는 意識의 構造는 體驗을 表示하는 Besinnung 即 意味이며, 그 特殊化에 依하여 自我意識이 充實되고 主觀化된다는 것이다.

第二 命題에 있어서 精神의 意味는 第一 命題의 것과는 달리 心理學的 操作에 依해서 理解되며, 그 對象이 되는 것은 動作, 言語, 作品 등을 包含하는 表現이다. 一般的으로 表現은 現象과 달리 表現되는 것과 表現하는 것과의 關係가 包含되어 있다. 그것을 外와 內, 또는 explicit(顯在)와 implicit(潛在)의 關係로 說明한다는 것은 妥當하지 못하다. 表現되는 것은 現象에 對한 假象으로서 構想된 것이고 認識의 對象으로는 etwas(something)로 解明되는 것이며, 그

方法으로는 現象이라고 認知된 表現의 樣式을 素材로 하여, 그 關係에서 一定한 意味를 發見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自然現象의 認識에서 適用되고 있는 操作法인데, 이때 假象의 構想에 意識作用으로서의 心理學的 範疇를 介入시키는 것이 理解의 方法이 되므로, 그 介入의 必要, 不必要에 따라 現象이 表現으로 理解되는냐의 如否가 判斷되는 것이다. 이러한 理解는 假象이 現象이 되는 것이 아니고, 現象이 意識作用이라는 心理學的 範疇에 依하여 意味가 賦與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經驗의 座標를 달리 하는 意味의 轉換인 것이다. 따라서 精神은 實體概念으로가 아니고 關係概念 또는 象徵概念으로서의 意味를 갖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意味는 個體와 그 環境의 生活關聯에 있어서 現象하는 表現의 樣式에 依해 特殊化하는 것이며, 그러한 곳에서 精神의 特性이 理解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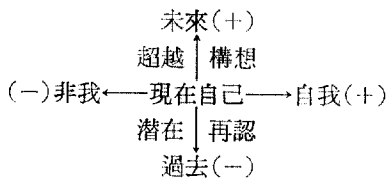
心理學에 있어서의 個性, 性格, 人格 또는 民族性, 人間性 같은 概念은 表現에 있어서의 一般性和 特殊性的 關係에서 理解되는 것이므로, 그 表現에서 비로소 人間의 實存性 또는 自覺의 存在가 理解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表現을 通하여 解釋되고 또는 理解되는 意味는 自覺의 存在를 表現하는 意味(Besinnung)에 對한 意義(Be-deutung)인 것이다.

一般的으로 科學的 認識은 經驗的 素材에 對한 思惟形式의 措定 또는 象徵概念의 形式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에 關하여 A. C. Benjamin이 그의 著書 Operationismus(1955)에서 感性的 操作을 資料에 對한 象徵措定の 한 變數로 認定하는 S는 D와 O의 關係의 函數라는 方程式을 提示하고 있다. 即 이 $S=f(D \cdot O)$ 라는 方程式에 있어서의 S는 記號 即 事象의 意味를 表現하는 象徵이며, 그 意味를 解明하기 위해서는 D 即 資料를 O 即 認知的으로 操作하여 그 函數의 關係로 誘導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S에는 目的論的 意義(significance)가 包含되어 있으므로, 그것에 科學的 操作을 加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면 目的論的 側面과 機制論的 性質이 統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科學的 操作의 主體性이 問題가 된다. 여기에 心理學의 方法으로 '行動의 操作에 依한 生活의 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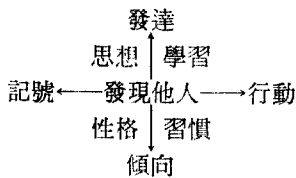
成'이라는 第三의 命題가 成立된다. 이렇게 하여 心的 事象이 生活의 形成으로 轉換되므로써 心理學에서도 價値의 問題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며, 心理學은 科學인 同時에 技術學의 役割도 擔當하여야 하겠다.

이제까지 言及한 心理學에 있어서의 存在命題를 座標體系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은 圖式(別途提示)이 될 것이다. 結論的으로 前述한 第一命題는 意識의 意味體系를, 第二命題는 精神의 意義體系가 되며, 그리고 第三命題는 生活의 價値體系를 闡明하는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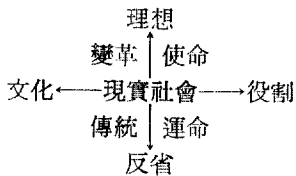
I. 第一命題인 意識의 座標



II. 第二命題인 精神의 座標



III. 第三命題인 生活의 座標



元來 座標란 數學的 概念이다. 이것을 心理學에 適用한다는 것은 心理學的 經驗이 數學적으로 操作된다는 것을 是認하고 있는 것이 된다. 座標는 x 軸과 y 軸의 關係로 表現된다. 心理學的 經驗의 座標에서는 x 軸은 經驗의 內容을 그리고 y 軸은 時間을 表示한다. 이때 心理學的 時間은 '現在'를 起點으로 하여 過去와 未來에의 方向에 對立하는 次元으로 表現될 것이다. 이것을 數學的 記號로 表示한다면 現在는 0, 未來는 +, 過去는 -가 될 것이다. 이것에 對應하여 x 軸은 經驗의 內容으로 '自己'를 表示하는 것이며, 이때도 0를 起點으로 하여 +와 -의 方向에 對立한다. 이것은 經驗의 自覺에 依한 意識의 構造를 表明하는 座標 即 意識의 座標에서 +의 方

向은 自我, -의 方向에 非我が 位置한다. 그리고 어느 座標에서나 x 와 y 와의 對應에서 네가지의 相限이 成立되는데, 이 座標에서는 + x 와 + y 의 對應에서는 構想이, + x 와 - y 의 對應에서는 再認이, - x 와 + y 의 對應에서는 超越이, 그리고 - x 와 - y 의 對應에서는 潛在가 成立된다고 生覺할 수 있다. 非我로서 容認되는 모든 것은 自我의 意識에서 볼 때, 假象에 지나지 아니하며 超越은 自然과 世界와 같은 對象이며, 潛在은 無意識과 같은 對象이다. 그리고 自我의 意識이 構想과 再認의 作用에 依해서 意識에 表象, 意欲과 判斷이라는 作用을 自覺케 한다. 이것은 現象學的 本質直觀으로 認知할 수 있는 意識의 基本的 作用인데, 實은 意欲은 表象을, 判斷은 意欲을 豫定한다는 一定한 秩序를 維持하면서, 이들—表象·意欲·判斷—이 意識을 構成한다. 그리고 이들은 非我의 方向에 있어서 超越과 潛在의 對象을 容認하는 것이 되는데, 意識이 對象을 志向的으로 內在케 하는 作用이라고 想定한다면, 그 作用은 經驗에 意味를 賦與 即 *Besinnung*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意識의 構造는 意味의 體系라고 할 수 있는 理論이 成立된다. 이것이 第一의 命題를 表明한 意味의 座標인데, 이 意味賦與의 作用에는 表現이 반드시 隨伴한다. 言語가 그 代表的인 것이다. 一般的으로 經驗의 象徵化 或은 記號化의 作用이 表象, 意欲, 判斷과는 別途로 그것들을 豫定하는 意識의 基本的 作用이라고 認定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第一命題를 表明하는 意識의 座標는 第二命題를 表示하는 精神의 座標로 轉換되는데, 그것은 意識의 表現에 依한 意味의 轉換인 것이다. 即 x 는 自己에서 '他人'으로 y 는 時間에서 生成으로 轉換되고, 現在는 '發現'으로 轉換하는 것이다. 이때의 + x 는 行動, - x 는 記號, 或은 象徵이고 그리고 + y 는 發達, - y 는 傾向으로 表示되며, 그들에서 學習과 習慣, 思想과 性格의 相限이 形成된다.

第二命題를 表明한 精神의 座標는 第一命題인 意味(*Besinnung, Meaning*)의 體系에 對하여 意義(*Bedeutung, Significance*)의 體系이다. 意味가 意義로 轉換될 수 있는 것은 表現을 通하여 自己를 他人으로 轉換하는 것이다. 그러면

都大體 이러한 轉換이 어떻게 하여 可能할 것인가? 精神의 座標에 있어서도 x 와 y 는 現象의 事實를 가지고 變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만으로는 象徵으로서의 精神의 意義가 x 와 y 의 函數關係로는 解明될 수 없다. 即 精神의 意義인 S 에는 $S=f(x,y)$ 라는 方程式이 適用되지 않는다. 그것에는 意識의 座標에 있어서의 表象, 意欲, 判斷의 意味體系를 媒介變數로 하고, 表象의 하나로 知覺된 他人의 表現에서 導入되어야 한다.

이것이 表現의 理解이며, 表現理解의 操作으로는 表象, 意欲, 判斷과 같은 意識의 基本的 作用을 心理學的 範疇로 取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導入으로 因하여 他人의 表現은 生成과의 關係에서 學習과 習慣, 思想과 性格에 精神의 意義를 認定하게 된다. 精神이란 理解된 意義인 限, 그것은 表現과 關聯하여 發見됨과 同時에 賦與되는 것이므로 精神의 心理學은 解釋인 同時에 創作이 될 수 있다. 動物과 人間이 學習에 依해서 發達하는 知能과 技能은 心理學者에 依해 評價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떠한 評價基準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能力의 意義는 달라진다. 또 같은 個人에게서도 賦課된 作業의 性質에 따라 能力도 다르다. 能力自體가 무엇인가는 作業의 性質을 抽象하여서는 理解될 수 없다. 作業을 授與한다는 것은 行動에 意味를 賦與하는 것이 된다. 이것을 單純히 刺戟과 反應의 關係에서 觀察한다고 할지라도 刺戟은 實驗者의 意識에서는 여러 가지의 意味를 갖는 것이고 그것이 被驗者에게 어떻게 反應되느냐에 따라서 비로소 意義가 생긴다. 빛(光)이나 音에 對한 反應에서는 그들의 表象이 問題가 될 수 있고, 그것은 同時에 意欲과 判斷의 問題로도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어떠한 意義를 認定하느냐는 心理學者의 操作에 依해서 反應이 여러 가지의 意義로 解釋되며, 同時에 그 操作이 反應에 意義를 賦與하는 것이 된다. 萬若에 그 刺戟이 判斷을 要求하는 것일 때 그것은 被驗者의 意識으로 直接 經驗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表現을 通하여 理解된 判斷의 意義는 意識에서 自覺된 判斷의 意味와는 다른 것이며, 그것은 判斷의 機能이라고 生覺되는 知能이나 技能과 같은 能力

이며, 그것은 心理學的 操作을 거쳐서 비로소 發見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創作된 것이다. 그래서 知能과 技能이라는 概念은 心理學者에 따라 여러 가지로 定義될 수 있고, 다만 그 眞理性 即 理論이 問題가 되는 것이다. 特히 그것이 評價의 對象이 될 때는 그 基準의 設定이 心理學的 認識을 超越하여야 함에도 不拘하고 心理學者는 그러한 事情에 介意치 않고 操作한다. 이것은 心理學에 있어서의 價値의 問題이며, 價値가 意味와 關聯되어 意識의 心理學的 問題가 될 수 있는 限 또한 精神의 心理學的 問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學習이나 習慣도 價値와 無關係하게 理解될 수 없고, 或은 思想이나 性格은 有特히 價値와 關聯되어서도 理解되지 않는 境遇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精神의 心理學에서는 精神의 意義가 創作되려면 그것은 理解 或은 解釋의 方法에서 그런 것이지, 決코 評價의 方法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 心理學에서 價値의 問題는 어떻게 解決될 것인가?

이것이 第三의 命題인 行動의 操作에 依한 生活의 形成인 것이다. 이 命題는 生活의 座標로 表示될 수 있다.

이 境遇, 座標의 轉換은 第二의 命題에 있어서의 x 의 他人을 '社會'로, 그리고 y 의 生成을 歷史로 轉換하는 것이며, 그것을 可能케 하는 것이 價値를 생기게 하는 態度이다. 그래서 이 座標는 價値 또는 評價의 體系로 表示할 수 있다. 이 座標에서는 歷史는 '現實'을 中心으로 하고 理想과 反省이, 그리고 社會는 顯在의 人間關係로서의 役割과 潛在의 人間關係로서의 文化와 對立한다. 그리고 그들의 座標軸에서 使命과 運命, 變革과 傳統같은 相限이 形成된다. 일찌기 O. Külpe를 中心으로 한 Würzburg學派의 心理學이 判斷, 思考, 意志와 같은 高等精神作用과 더불어 價値의 體驗을 다루어서 價値心理學을 進展시키고 있었는데, 그 方法은 價値體驗에 關한 現象學的 實驗이었으므로, 結果적으로 意識 心理學的 域을 脫出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오로지 意識의 座標에서 意味를 價値로 轉換하든가, 또는 精神의 座標에서 意義를 價値로 轉換하므로써 成立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心理學的 方法으로는 價値는 意義에서의 轉換이 어

야 한다. 價値가 意味에서 直接 轉換되면 그것은 存在를 通하지 않으므로 因하여 오히려 存在를 統制하는 規範이 되므로 心理學도 倫理學이나 美學과 같은 規範學이 되고 말 것이다. 規範學이 因果論과 機械論에 對하여 目的論으로 認定되는 것은 價値가 存在의 構成原理가 아니고 統制原理로 認定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心理學은 實在科學인 限 價値를 問題로 할 때도, 그것을 곧 統制原理로가 아니고 構成原理로 使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爲해서는 價値를 自我의 價値體系에서 直接 科學者로서 自己의 認識原理로 轉換할 것이 아니라, 于先 他人의 表現을 通하여 精神의 意義로 理解하고나서 그것을 生活의 形成 即 存在構成의 原理로 使用하여야 하겠다. I. Kant가 主觀的 合目的性이라고 한 것은 科學者가 自己의 認識原理로 價値를 先驗한다는 立場이며, 이 立場에서 科學은 理論科學

과 應用科學으로 區別된다. 科學에 對하여 技術이 區別되는 것도 그와 같은 立場을 取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心理學的 認識의 原理로 目的論을 設定하기 爲해서 그 原理는 意識의 構造를 意味聯關 或은 目的聯關으로 認識하는 主觀的 合目的性이다. 精神의 意義를 表現의 合目的性으로 理解하려고 하는 것은 그 內面的 或은 客觀的 合目的性이며, 그것은 精神의 表現을 理解하는 合目的性의 意義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 合目的性에는 目的과 手段과의 關係에서 生産되는 存在를 認知하고, 그 存在가 自然과 人間, 人間과 人間과의 關係에서 認知될 때는 그 合目的性은 價値로 認定되는 것이다. 心理學에 있어서의 立場의 相異나 方法의 混亂을 떠나서 이들 세 座標를 區別하고 그 轉換이 可能하므로서 모든 心理的 事象이 解明될 수 있는 것이다.